

삼성화재, 상반기 세전이익 11.2% ↑ 5조 목표 ‘신계약 CSM·글로벌’ 변수

(2030년)

상반기 연결 세전이익 1조8508억
보험손익 10.9% ↑·투자손익 22% ↑
신계약 CSM 등 수익성 개선 과제

삼성화재가 ‘2030년 세전이익 5조원’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올 첫해에 이익은 늘렸지만 미래 보험이익 재원인 신계약 보험계약파진(CSM)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에서 목표까지 동일한 성장률을 적용하면 올해 3조1293억원, 남은 반기에는 1조2785억원이 필요해 이익과 신규 계약의 양·질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올 상반기 연결 세전이익은 1조850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2%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1조1145억원으로 10.9%, 투자손익은 7880억원으로 22.0% 각각 늘었다.

◆ 연 12.4% 성장해야… 하반기 1.2조 필요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는 올해 경영계획에서 2030년 세전이익 5조원 이상을 제시했다. 장기보험 수익성 강화와 자동차보험의 지속 가능한 흑자, 일반·글로벌 사업 확대가 실행과제다.

삼성화재의 지난해 연결 세전이익은 2조7833억원이었다. 여기서 2030년 5조원까지 동일한 성장률을 적용하면 연평균 12.4%씩 높아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올해 경로는 3조1293억원이다. 남은 반기에 필요한 1조2785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많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보험손익 감소를 43.5% 늘어난 투자손익으로 만회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두 손익이 함께 증가했



삼성화재 사옥.

/삼성화재

다. 다만 삼성화재는 주식 평가이익과 일반보험 대형사고 감소를 개선 요인으로 꼽았다.

하나증권도 2분기 장기보험손익에 장래 손실에 대비했던 비용을 되돌리는 손실부담계약비용 환입 약 544억원이 포함됐고, 캐노피우스 지분법이익 중 약 380억원은 일회성이라고 분석했다.

◆ 기존 계약 효율 개선… 새 CSM 12.6% 감소

장기보험에서는 현재와 미래 이익의 흐름이 엇갈렸다. 상반기 장기보험손익은 8804억원으로 5.6% 증가했다. 25회차와 37회차 계약유지율은 각각 6.0%포인트(p), 6.3%p 개선됐고 신계약 CSM 배수도 12.8배에서 13.9배로 상승했다. 수익성 높은 계약에 집중한 효과다.

반면 월평균 보장성 신계약 보험료는 149억원으로 19.5%, 신계약 CSM은 1조2423억원으로 12.6% 감소했다. 전체 CSM은 지난해 말보다 4271억원 증가한 14조5947억원이어서 당장 미래 이익 기반이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신규 CSM 둔화가 길어지면 향후 보험이익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다.

하나증권은 신계약 CSM 배수의 추가 하락을 막을 경우 올해 신계약 CSM이 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실적 2조8984억원과 유사하다. 이 전망대로라면 남은 반기에 1조6577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상반기보다 33.4%, 전년 동기보다 약 12.2% 많다. 삼성화재는 전속채널 신인 설계사 확충으로 하반기 신계약 CSM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보험은 2분기 296억원의 보험이익을 냈지만 상반기 누적 보험이익은 2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7% 줄었다. 일반보험손익은 1875억원으로 75.6% 증가했으나 저수익의 부분 관리와 함께 대형사고 감소 효과가 반영됐다.

글로벌 사업도 엇갈렸다. 영국 로이즈보험사 캐노피우스의 지분법이익은 1685억원으로 247.6% 급증했다. 해외법인은 수익이 43.3% 늘어난 1420억원을 기록했지만 손익은 약 40억원으로 81.5% 급감했다. 지분투자 성과는 가시화됐지만 직접 영업하는 해외법인의 수익 안정화는 과제로 남았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금융위, PF 사업장 ‘LH 매입임대’ 전환 속도

국토부·LH 등 관계기관 협업 논의
자금조달 지연 사업장 등 매입 확대

정부가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으로 멈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수도권 도심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국토부·LH·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향후 사업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정례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축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금조달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PF 사업장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주택 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을 시범 추진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

에 제공하고, LH가 사업성을 검토한 뒤 사업자에게 참여 여부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지난해에는 총 12개 사업장, 약 2600가구에 대해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상 사업장과 매입유형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PF 사업장이 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더라도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방식도 기존 신축매입약정뿐 아니라 기축매입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PF 사업장도 LH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70%로 확대되고, 2028년에는 50%가 적용된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LH는 현재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매입임대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하고 사업자의 매각수요를 확인하고 있다. 접수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LH는 다음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해 매입임대사업 설명과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주택을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든 준공 이후 매수자와 매각가격을 미리 확정할 수 있어 미분양 위험을 낮추고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고정형 주담대 금리 4.76%… 신규 비중 급감

시장금리 상승에 변동형 비중 증가

시장금리 상승 속에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개월 연속 오른 연 4.76%를 기록했다. 신규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은 31.9%로 떨어져 12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64%로 전월보다 0.14%포인트(p) 상승했다.

◆ 고정형 주담대 0.23%p ↑… 변동형 보다 상승폭 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48%로 0.12%p 올랐다. 금리 조건별로는 고정형이 4.53%에서 4.76%로 0.23%p, 변동형이 4.27%에서 4.35%로 0.08%p 각각 상승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7월 고정형 금리는 변동형보다 0.41%p 높았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97%로 한 달 사이 0.25%p 뛰었다. 보증대출은 4.26%로 0.15%p, 전세자금대출은 4.19%로 0.12%p 각각 상승했다.

관련 시장·수신금리도 대체로 올랐다. 신규취급액 코픽스의 7월 대상월 금리는 3.18%로 전월보다 0.13%p 상승했고, 실제 대출에 적용되는 코픽스는 2.98%로 0.08%p 올랐다. 은행재 5년물 금리는 4.39%로 0.07%p 상승했다.

고정형 금리의 상대적인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고정금리대출 취급 비중도 낮아졌다. 전체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로 전월보다

1.7%p 떨어졌다. 2022년 5월 20.7% 이후 가장 낮고, 지난해 8월부터 12개월 연속 하락했다.

신규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은 한 달 새 37.7%에서 31.9%로 5.8%p 급락했다. 2014년 2월 31.8% 이후 최저치로,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낮아졌다.

◆ 중기대출 금리 하락에 은행 평균은 내리

가계대출과 달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는 4.27%로 전월보다 0.04%p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가 4.20%로 0.07%p 내리면서 평균을 끌어내렸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단기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4.18%로 0.01%p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22%로 0.16%p 하락했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시장금리 오름세를 반영해 3.21%로 0.13%p 상승했다. 지난 4월 2.92%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16%로 0.14%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48%로 0.12%p 올랐다.

대출금리는 내리고 수신금리는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06%p로 0.17%p 축소됐다. 지난 2월 1.43%p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총수신금리가 2.15%로 0.08%p, 총대출금리가 4.37%로 0.03%p 각각 상승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2%p로 0.05%p 줄었다.

비은행권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21%로 0.47%p 올랐다. 일반대출 금리는 10.51%로 한 달 사이 1.03%p 상승했다.

/김주형 기자

신한금융-Visa, 미래 금융서비스 개발 ‘맞손’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등 협력

신한금융그룹이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Visa)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 금융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신한금융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비자그룹과 디지털자산·AI 기반 결제 및 기업간거래(B2B) 등 미래 금융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양사 주요 경영진이 논의한 미래금융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에 협력한다. 신한금융은 비자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활용해 발행·송금·상환 등 핵심 기능을 검증하고 국



신한금융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비자그룹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과 크리스 뉴커크 비자 사장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내 금융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사업모델을 공동 설계할 계획이다. 또 AI 기반 미래 결제모델 구현과 B2B·B2C 결제사업 확대를 위한 공동 실증 및 차세대 금융서비스 개발에도 협력한다.

/나유리 기자

한화 건설부문, ‘에너지 관리’ 국책과제 참여

‘건축물 자율운영 기술’ 기반 마련 예정

한화 건설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BIM 활용 디지털트윈 기반 건물에너지 관리 시뮬레이터 개발 및 실증’ 국책과제에 참여해 AI를 활용한 건물에너지 관리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한화 건설부문을 비롯해 E8, 서울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1개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다. 총 연구개발비는 약 153억원 규모다.

한화 건설부문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건물 운영·유지관리 검증을 담당하며, 시간대별 에너지 예측 정확도 95% 이상, 피크전력 20% 이상 감소를 목표로 한다. 나아가 AI가 설비 상태와 에너지 사용패턴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건축물 자율운영 기술’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